

CHAPTER 2

마약류별
현황

제1절. 아편, 헤로인

제2절. 코카인

제3절.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제4절. 대마

1 아편, 헤로인¹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 세계 현황 개요

- ▶ 2021년도 전 세계적으로(이하 '세계'로 표기함) 양귀비 재배면적은 감소, 아편 생산량은 증가
 - 2021년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246,800ha로 축구장 약 345,600배에 해당, 2020년도 (294,350ha) 대비 재배면적이 16% 감소함, 최대 양귀비 재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재배면적이 2020년도 224,000ha에서 2021년도 177,000ha로 약 21%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21년도 아편 총생산량은 약 7,930톤으로 2020년도 대비 7% 증가, 그 중 약 1,177~1,477톤은 순수 아편으로서 소비됨,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도 세계 아편 생산량의 86%를 차지, 뒤를 이어 미얀마, 멕시코가 세계 아편 생산량의 각 6%씩 차지함
- ▶ 2020년도 세계 헤로인 적발량은 증가, 헤로인 생산량은 안정화
 - 2020년도 세계 헤로인 적발량은 약 115톤으로, 2019년도 대비 19% 증가, 세계 헤로인 적발량 중 27%가 이란, 파키스탄은 24%, 터키는 14%로 대부분 서남아시아에 위치함
 - 2021년도 세계 헤로인은 약 495~755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약 472~722톤), 2020년도(약 454~694톤) 세계 헤로인 생산량과 크게 차이가 없음
 - 2013~2019년도까지 세계 헤로인 생산량은 매년 약 550톤 수준으로, 헤로인 생산방법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아편을 모르핀으로 정제, 모르핀을 헤로인으로 변형하는 단계를 거치며, 주로 아편이 생산되는 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생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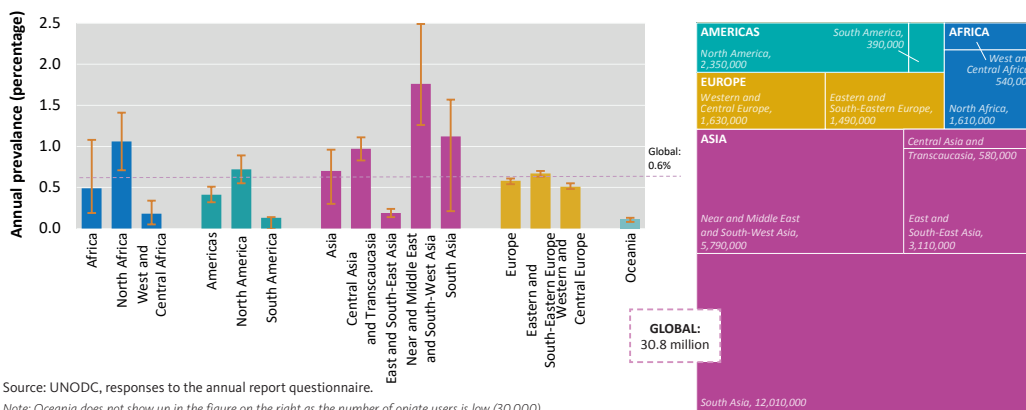
¹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2

소비(남용) 현황

- ▶ 2020년도에 세계 아편유사제(Opioids)² 남용 인구는 아편제(Opiates)³ 남용자 약 3,100만 명을 포함하여 약 6,100만 명으로, 이는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1.2%에 달하는 수치이고, 2019년 약 6,200만 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 아편유사제 남용 인구 중 절반은 아편제(주로 헤로인, 아편)를 남용하고, 아편제의 대중화 정도(annual prevalence)는 중동 및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북미 순으로 높고, 각 대륙의 인구 차이로 인해 아편제 남용자 수는 남아시아가 제일 많음

[그림 2-1] 대륙에 따른 세계 아편제의 남용자 수 및 아편 남용 대중화 정도(2020년)



Source: UNODC, responses to the annual report questionnaire.

Note: Oceania does not show up in the figure on the right as the number of opiate users is low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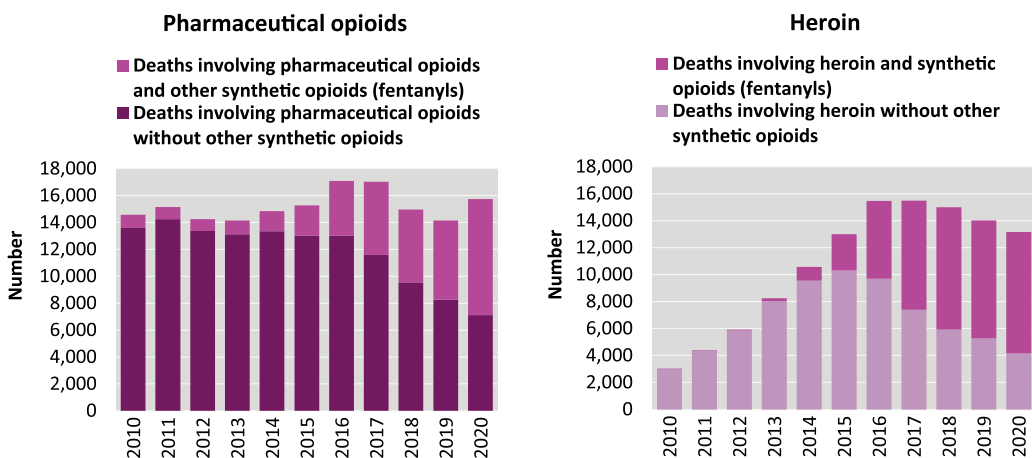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² 아편유사제(Opioid)는 아편 첨가제(Opiates)를 포함한 펜타닐(Fentanyl), 메타돈(Methadone) 등 합성 유사체(Synthetic compounds)를 통칭[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³ 아편제(Opiates)는 아편(Opium),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양귀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 또는 추출된 알칼로이드[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 ▶ 조사 대상국 총 140개국 중 70개국에서 아편유사제 중 헤로인이 가장 많이 남용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의료용 아편유사제(pharmaceutical opioids)는 35개국, 아편은 16개국, 트라마돌(tramadol)은 11개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것으로 확인됨
- ▶ 최근 아편유사제 남용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헤로인과 다른 마약류가 혼합 생산되는 북미의 펜타닐 문제, 두 번째는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의 트라마돌 남용 문제이며, 주로 아편유사제 낮은 가격이 위와 같은 양상에 영향을 미침
- ▶ 2013년도부터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 문제가 부각, 펜타닐은 주로 헤로인 대체제로서 미국 마약 시장에서 판매되었음. 이후 더욱 저렴해진 가격과, 특히 헤로인에 대한 내성 증가로 펜타닐 남용이 더 큰 만족감을 줌으로써 소비가 더욱 가속화 됨
- ▶ 코로나19 기간 동안 북미에서 아편유사제 과다복용(주로 펜타닐)에 의한 사망자가 증가하였는데, 2020년 미국에서 마약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91,799명에 달하고, 2021년에는 107,622명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2-2] 미국 내 의료용 아편유사제 및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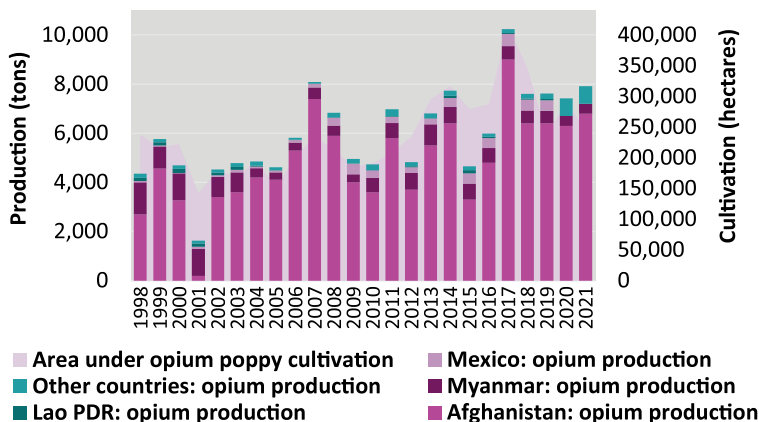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3 생산 현황

- ▶ 2021년도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은 246,800ha로 2020년도 대비 약 16% 감소함, 주요 원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재배면적이 2020년도 224,000ha에서 2021년도 177,000ha로 약 21%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 2021년도 미얀마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2020년도 대비 2% 증가한 30,200ha이며, 세계적인 양귀비 재배면적 감소 추세와 달리 미얀마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음, 미얀마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은 미얀마에서 이미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이후 반등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 ▶ 지난 10년간 57개국에서 아편 생산이 보고되었으며, 2021년도 양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편 생산량은 2020년도 대비 약 7% 늘어난 7,930톤임, 그 중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도 아편 총생산량의 약 86%를 차지(뒤를 이어 미얀마, 멕시코가 각 약 6%씩 차지)
- ▶ 2021년 아편 생산량의 증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재배면적(ha)당 아편 생산량이 2020년 28kg에서 2021년 38kg까지 증가한 것이 2021년 아편 생산량의 증가의 주요 원인임 (2021년 미얀마 재배면적당 아편 생산량은 14kg, 2018/19년 멕시코는 21kg)

[그림 2-3]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1998~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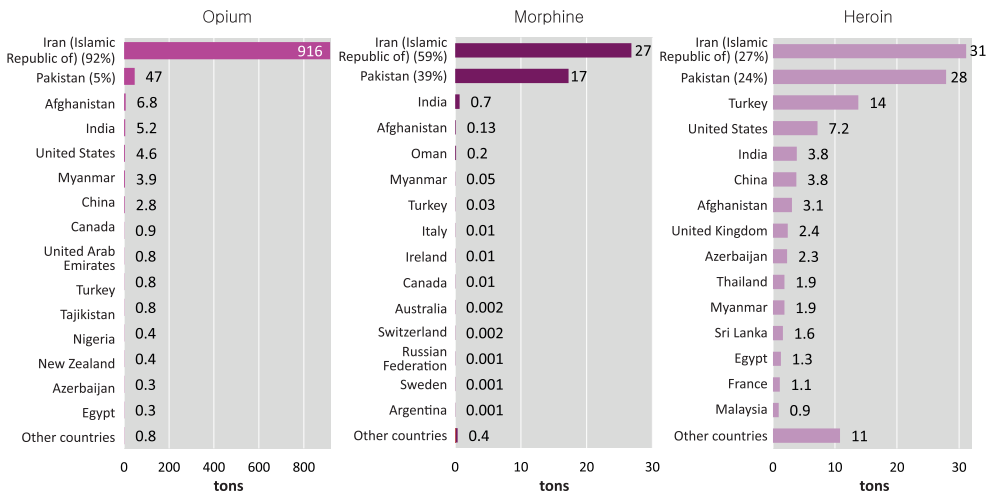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2021년도 세계 헤로인은 약 495~755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약 472~722톤), 2020년도(약 454~694톤) 세계 헤로인 생산량과 크게 차이가 없음

4 밀매 현황

- 2020년도 세계 아편 압수량은 약 992톤으로 2019년 대비 약 37% 증가, 2020년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약 115톤으로 2019년 대비 19% 증가, 2020년도 세계 모르핀 압수량 또한 2019년도 대비 22% 증가한 약 46톤임
- 2020년 세계 아편제 압수량은 약 40%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임, 특히 이란이 아편 압수량의 전체의 92%를 차지, 모르핀 압수량은 이란 59%, 파키스탄 39%, 헤로인 압수량은 이란 27%, 파키스탄 24%, 터키 1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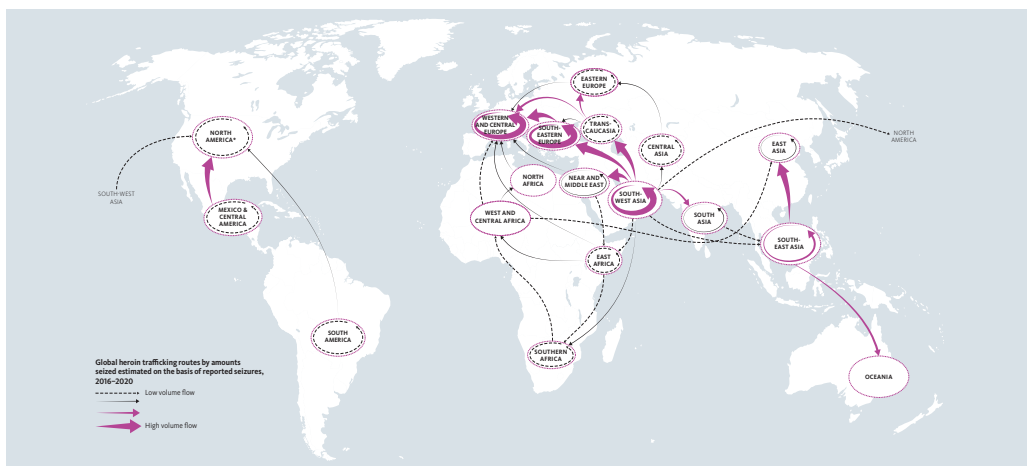
[그림 2-4] 국가별 아편제 적발량 (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2020년 헤로인, 모르핀은 아시아에서 약 79%가 압수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46%가 증가한 수치임
-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는 세계 아편제(주로 모르핀, 헤로인)의 주요 밀수 경로임
-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아편제의 주요 경유국은 파키스탄으로, 세계 헤로인, 모르핀의 약 29%가 파키스탄에서 압수됨

[그림 2-5] 세계 아편제 유통 경로(2016~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5

국내 헤로인 유통현황

[표 2-1]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⁴

(단위 :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검거인원	0	0	3	1	1	1	0	2	3	4
압수량(g)	0	0	4.54	0.03	3.73	1.93	0	8.81	1,213.29	35.79

- 1990년대 초반까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생산지에서 주요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음
- 최근에는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내국인 투약사범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⁴ 헤로인은 압수되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피의자를 특정 못할 경우)에도 포함

2 코카인⁵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 세계 현황 개요

- ▶ 2020년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2019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음
 - 2020년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약 234,200ha로 2019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콜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7.1% 감소하였으나, 페루에서 13%, 볼리비아에서 15.3% 각 증가하여 증감률이 상쇄됨
 - 2020년도 콜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약 143,000ha로, 세계 최대 코카나무 재배 국이자,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임
 - 2015년도 이후 페루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0년도 재배면적은 약 61,800ha로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의 12%가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볼리비아 내 'Yungas de la Paz'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함
- ▶ 2020년도 세계 코카인 적발량은 역대 최대치
 - 2020년도 세계 코카인 적발량은 약 1,424톤으로 2019년도 대비 4.5% 증가하였고, 최대 코카인 생산지인 남미 지역에서의 적발량이 많으며, 현재 남미의 코카인 적발량이 북미보다 약 5배 많음
 - 콜롬비아의 코카인 적발량이 세계 코카인 적발량의 41%에 해당하고, 미국 11%, 에콰도르 6.5% 및 브라질 6.4% 순서로 비중이 높으며, 위 국가들은 모두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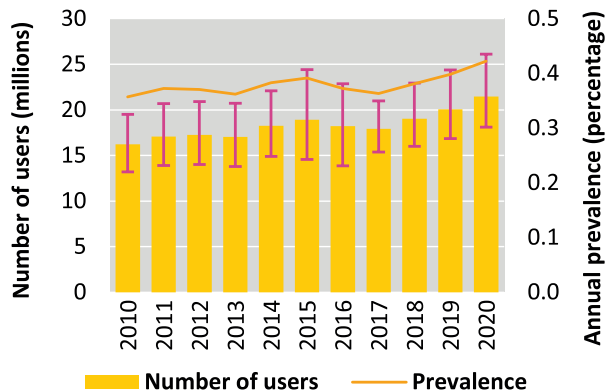
⁵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코카인의 주요 이동경로는 안데스 산맥(주로 콜롬비아)에서 시작하여 선박 등을 이용하여 태평양을 따라 북미, 서부·중부 유럽으로까지 이어짐
- 2015~202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적발된 코카인의 70%가 브라질에서 출발하였고,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 적발된 코카인의 46%가 브라질로부터 밀수됨

2 소비(남용) 현황

- 2020년도 세계 코카인 남용 인구는 약 2천 1백만 명으로, 이는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0.4%를 차지하며, 2010년도 이후 코카인 남용 인구가 32% 증가하였으나, 2019년도 약 2천만 명 대비 증가폭은 크지 않음
- 코카인은 일반적인 유흥(entertainment) 마약으로, 코로나19 관련 통제정책 등으로 인해 2019~2020년도에 코카인 남용 인구 증가 추세가 정체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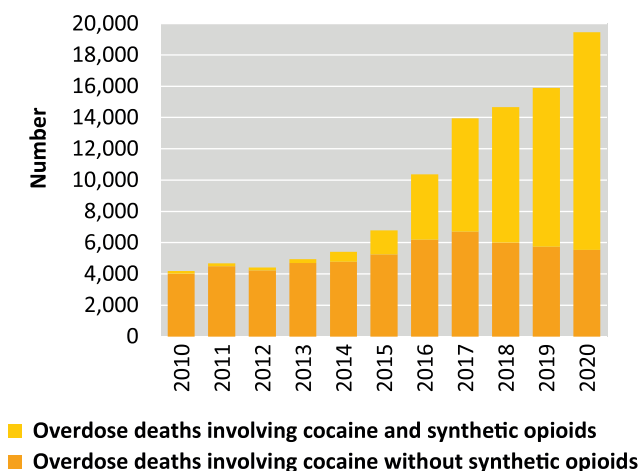
[그림 2-6] 세계 코카인 남용 인구 및 대중화 정도(2010~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폐수 기반 역학조사(일부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만 이용 가능) 결과, 벤조일엑고닌 (benzoylecgonine, 코카인 투약 후 검출되는 대사산물) 검출 수치는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약 13% 감소함
- ▶ 2020년도 남미에서 약 4백 70만 명이 지난 1년 내 코카인을 남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그 중 아르헨티나에서 코카인 남용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브라질 내 마약 관련 사망자 총 632명 중 283명이 코카인과 관련되어 있음
- ▶ 북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인 시장으로 약 6백 40만 명이 지난 1년 내 코카인을 남용함, 2019년도 미국에서 약 1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코카인 남용 관련 약물 치료를 처방받음

[그림 2-기] 미국 내 코카인 남용 사망자 수(2010~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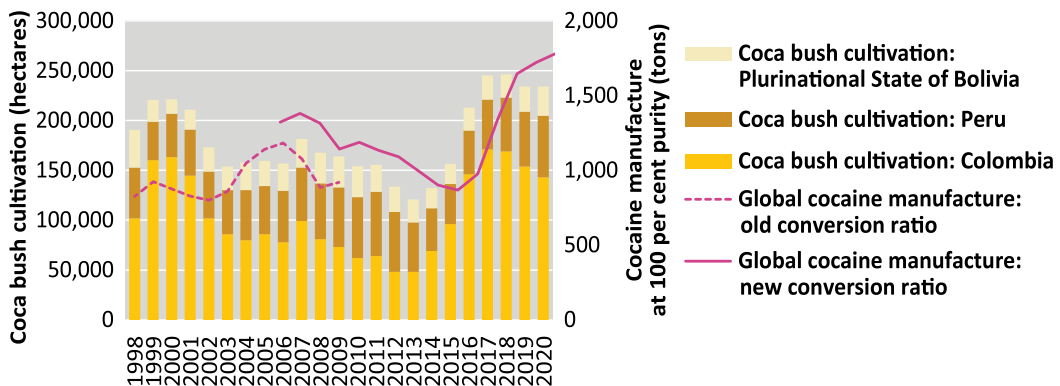
- ▶ 2020년도 오세아니아에서는 약 730,000명이 최근 1년 내 코카인을 남용하였고, 대부분 호주와 뉴질랜드에 집중되어 있음

3

생산 현황

- 2020년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약 234,200ha으로 2019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음, 콜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7.1% 감소하였으나, 페루에서 13%, 볼리비아에서 15.3% 코카나무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증감률이 상쇄되었음
- 2020년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약 1,982톤(순도 100% 보정 기준)으로, 2019년도 대비 11% 증가하였고, 2014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수치임
- 콜롬비아는 2020년도 약 1,228톤의 코카인을 생산한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임, 2020년도 콜롬비아에서 전년 대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2019년도 대비 7.1% 감소하였으나, 코카인 생산량은 오히려 8% 증가함, 이는 재배면적당 코카인 수확량이 2019년도 5.8톤에서 2020년도 6.4톤으로, 재배면적당 코카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cocaine hydrochloride) 추출량이 2019년도 6.7kg에서 2020년도 7.9kg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0년도 콜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약 143,000ha로,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 코카나무 재배 국가이고, 이는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의 61%에 달하는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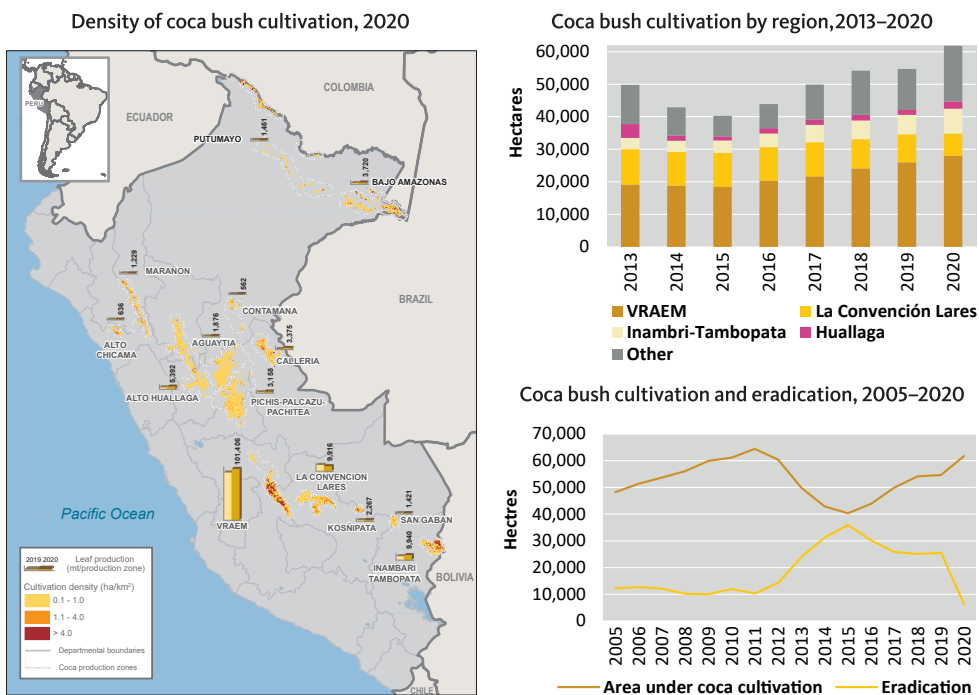
[그림 2-8]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 및 세계 코카인 생산량 추세선 (1998~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페루는 2015년도 이후 코카나무 재배면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 재배면적이 약 61,800ha로 2015년도 대비 50%(약 21,000ha)가 증가함, 페루 내 VRAEM(Valle de los Ríos Apurímac, Ene y Mantaro) 지역이 페루 전체의 45%, 코카인 생산량의 6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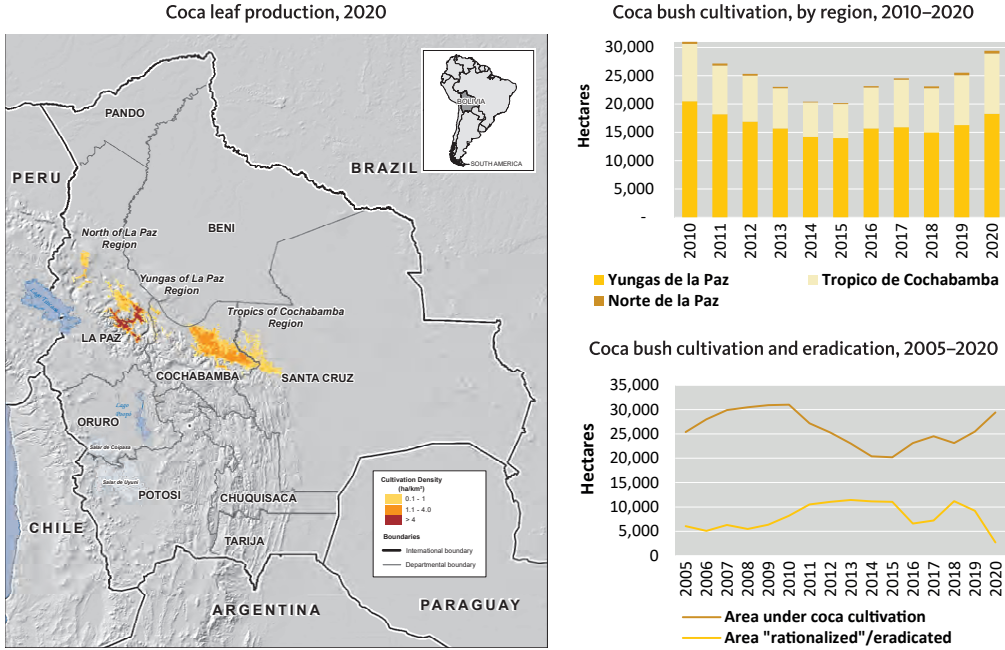
[그림 2-9] 페루 내 지역별 코카나무 재배면적 밀집도 및 면적(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2020년도 볼리비아의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29,400ha로,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의 12%를 차지하며, 약 62%(18,300ha)가 볼리비아 `Yungas de la Paz`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2-10] 볼리비아 내 코카나무 재배지역 분포도(2020년) 및 코카나무 재배면적 통계 (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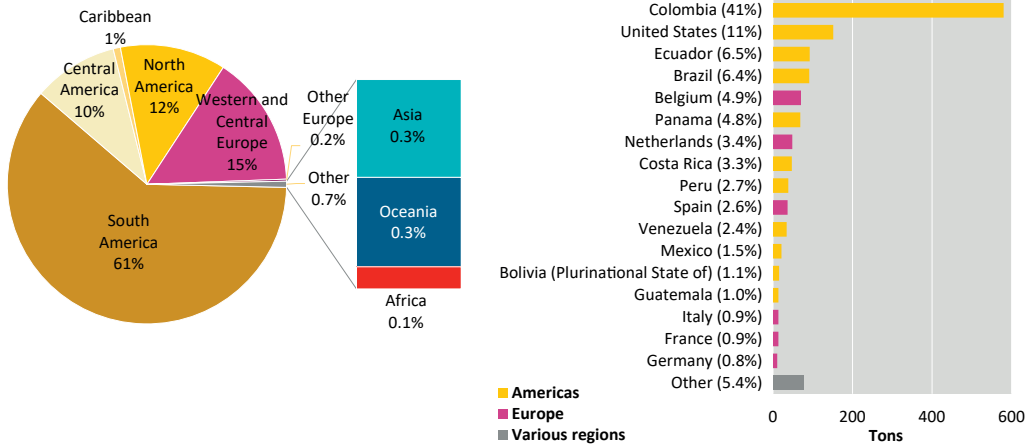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4 밀매 현황

- ▶ 2020년도 세계 코카인 적발량은 약 1,424톤(순도 보정 없음)으로 2019년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치임
- ▶ 지난 20년간 코카인 적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최대 코카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남미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짐, 현재 남미의 코카인 적발량이 북미보다 약 5배 많은데, 1999~2001년도까지 북미의 코카인 적발량이 남미보다 많았다는 것과 대조적임

[그림 2-11] 대륙별, 국가별 코카인 적발비율 및 적발량(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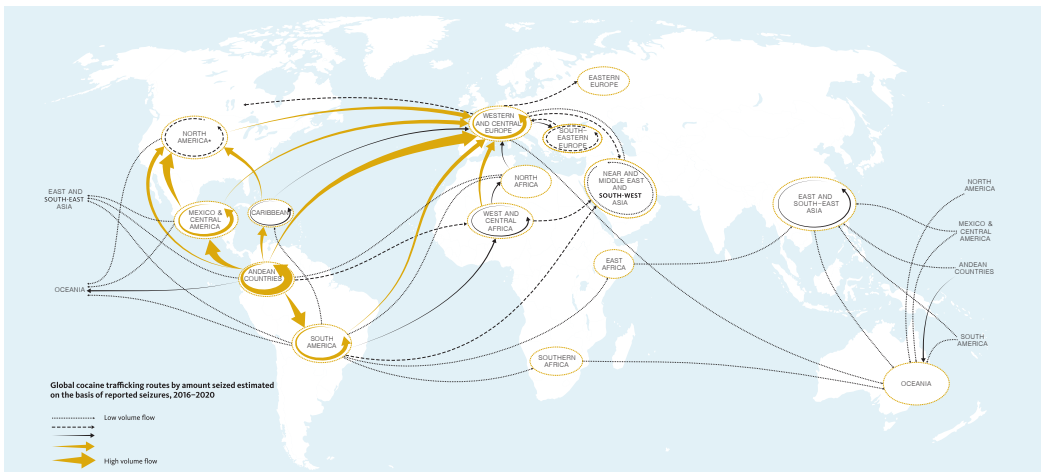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코카인 이동의 주요 경로는 안데스 산맥(주로 콜롬비아)에서 시작하여 태평양을 따라 북미, 서부·중부 유럽으로 이어지며, 주로 화물 컨테이너에 은닉된 상태로 선박이나 반잠수정을 이용하여 밀수가 이루어 짐
- ▶ 전체 코카인 밀매 중 해상을 통한 코카인 밀매의 비율은 2015~2018년도 84%에서 2021년도 89%까지 상승함
- ▶ 2020년도 미국에서 적발된 코카인의 대부분(2018년도에는 90%)이 콜롬비아에서 유입되었고, 2019년도 미국 내 코카인 적발량의 74%가 콜롬비아에서 동부 태평양을 따라 북미로 가는 선박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 지난 20년간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코카인 밀매가 증가추세에 있고, 지역적 범위도 확장되고 있음,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적발된 코카인은 서아프리카 해안 부근에서의 적발이 많으며, 특히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인 카보베르데(Cabo Verde)와 기니비사우 (Guinea Bissau) 사이에서의 적발량이 많음

- 2015~202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적발된 밀수목적 코카인의 유럽 내 주요 도착지는 벨기에이고, 그 뒤로 네덜란드, 영국 및 프랑스 순임
- 2015~2021년도에 아프리카에서 적발된 코카인의 70%는 브라질에서 출발하였고, 그 이외에 에콰도르 14%, 콜롬비아가 11%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같은 기간 아시아에서 적발된 코카인의 46%가 브라질로부터 밀수되었으며, 그 비율은 2020~2021년도에 72%까지 상승함

[그림 2-12] 코카인 밀매의 주요 흐름도(2016~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5 국내 코카인 유통현황

[표 2-2]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⁶

(단위 : 명)

구분 \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검거인원	3	8	5	4	6	6	22	14	6	7
압수량(g)	63.62	1,215	11	10	10,943	131	88,321	106,932	47,948	435,741

⁶ 코카인은 압수되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피의자를 특정 못할 경우)에도 포함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중향정물질[NPS]⁷

2022 마약류 범죄백서

1 세계 현황 개요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남용 인구 증감은 미비
 - 2019년도 대비 암페타민류 남용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용 인구는 비슷한 수준임
 - 세계 암페타민류 남용 인구의 37%가 북미에 집중되어 있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가 29%, 서부·중부 유럽이 7%를 각각 차지함
 - 2020년도 세계 엑스터시 남용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세계 성인인구의 0.4%에 해당하며, 엑스터시 남용인구 중 50%가 아시아에 소재함
- ▶ 암페타민류 각성제 생산공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
 - 2016~2020년도 45개국에 걸쳐 약 16,000개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적발되어 사라짐
 - 엑스터시 생산공장은 2010~2015년 해마다 평균 41개, 2016~2020년 해마다 평균 58개가 적발 후 사라짐
- ▶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적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함
 -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 적발량은 역대 최고치임, 그 중 메트암페타민이 전년 대비 16% 증가, 엑스터시가 전년 대비 23% 증가함

⁷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메트암페타민은 2016~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 적발량 중 약 72%를 차지함
- 메트암페타민 주요 출발국 또는 경유국인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내, 북미 내에서 메트암페타민 밀매가 활발함

나. 신중항정물질(NPS)

- ▶ 2009~2021년도까지 134개국에서 1,127개의 신중항정물질이 확인
 - 2021년도까지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항정신성 물질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임
 - 신중항정물질은 매우 짧은 기간에만 마약류 시장에 등장하였다가 곧장 사라지고 다른 신중항정물질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 그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신중항정물질은 대부분 흥분제(Stimulant)이며, 뒤를 이어 합성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s), 환각제, 아편유사제 순으로 많음
- ▶ 세계 합성 신중항정물질 적발량은 2012년도에 최고치를 달성한 후 감소추세
 - 2020년도 합성 칸나비노이드 적발량은 2012년도 대비 94%나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합성 캐치논 적발량은 2015년 최고치 대비 98% 감소함
 - 2020년도 세계 식물 기반 신중항정물질의 적발량 또한 2019년도 대비 감소함
- ▶ 노숙자, 수감자 등 취약 계층에서 신중항정물질이 만연한 현상 존재
 - 6개의 유럽 국가에서 취약계층이 합성 칸나비노이드를 매일 사용할 확률이 일반적인 밤 문화 환경(Nightlife settings)에 놓여있는 계층에 비하여 매우 높음
 - 헝가리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나 합성 캐치논을 정기적으로 남용하는 인구들은 주로 시골 지역에 있다고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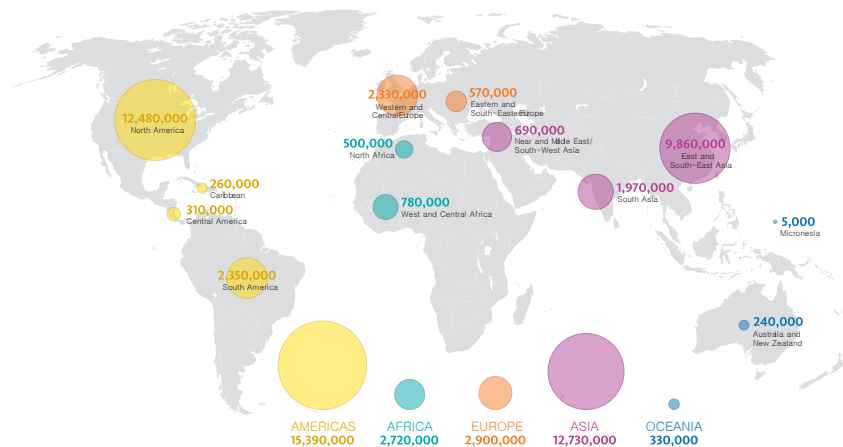
2

소비(남용) 현황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amphetamines, 주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지칭) 남용 인구는 약 3천 4백만 명(세계 성인인구의 0.7%)으로, 2019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남용 인구인 약 2천 7백만 명보다 증가하였으나, 2010년도 약 3천 3백만 명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음
- ▶ 최근 폐수 기반 역학조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소비 국가인 북미, 동남아, 호주에 이어 서부·중부 유럽, 남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메트암페타민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

[그림 2-13] 대륙별, 하위지역별 암페타민류 남용자 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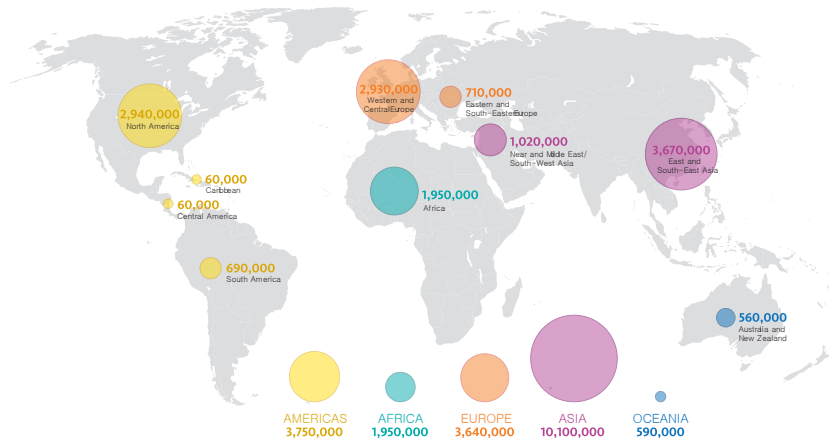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2020년도 북미에서는 성인(15~64세)인구의 3.9%인 약 1,250만 명이 암페타민류를 남용하였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서 약 1천만 명이 암페타민류를 남용함

- 2010~2019년까지 암페타민류 남용에 따른 치료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도에 상승추세가 정체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치료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 2013~2020년도 사이 멕시코에서는 암페타민류 사용으로 인한 약물치료 환자 수가 약 218% 증가하였고, 미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남용에 의한 약물치료 건수가 2010년 108,592건에서 2019년 209,014건으로 약 2배 증가함
- 2020년도 세계 엑스터시 남용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세계 성인인구의 0.4%에 해당하며, 아시아에만 1천만 명이 넘는 엑스터시 남용 인구가 소재하고, 유럽에는 3백 60만 명이 있음
- 특히, 클럽, 파티 등에서 주로 남용되는 엑스터시는 다른 어떤 마약류들 보다 코로나19 시기에 남용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폐수 기반 역학조사에서도 다른 암페타민류 남용보다 엑스터시의 남용이 더 감소하였다는 결과가 확인됨

[그림 2-14] 대륙별, 하위지역별 엑스터시 남용자 수(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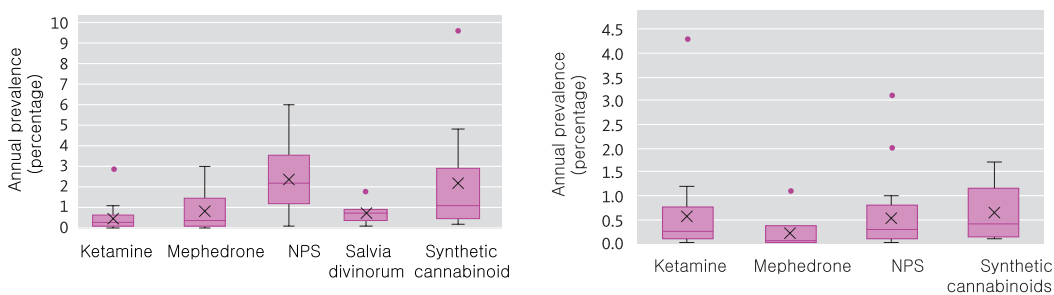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나. 신종 향정물질(NPS)

- 2020년도 77개국에서 신종향정물질 남용이 있었다고 보고되었고, 56개국에서 케타민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8개국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남용된다고 보고됨
- 신종향정물질이 다른 일반적으로 규제되어 온 마약류들보다 남용이 더 심하다고 보고된 사례는, 모리셔스(Mauritius)에서 신종향정물질이 자국에서 두 번째로 남용이 많은 마약류라고 보고된 것 이외에는 없음
- 2020년도 미국에서 전체 10학년 학생 중 28%가 대마를 남용하였으나, 합성 칸나비노이드를 남용한 10학년 학생은 2.5%에 불과하여, 신종향정물질 남용 정도는 다른 마약류들보다 비교적 낮음
- 성인인구(15~64세)의 신종향정물질 남용 정도를 보고하고 있는 국가는 23개국으로 제한되어 분석 가능한 통계가 많지 않음, 그 중 21개국에서 1% 또는 그 미만의 성인인구가 신종향정물질을 남용하였다고 보고하였음
- 청소년기 인구(15~16세)의 신종향정물질 남용을 보고하고 있는 국가는 총 44개국 이고, 이 시기의 전체 청소년기 인구 중 신종향정물질 남용 인구의 비율은 전체 성인 인구 중 신종향정물질 남용 성인인구 비율보다 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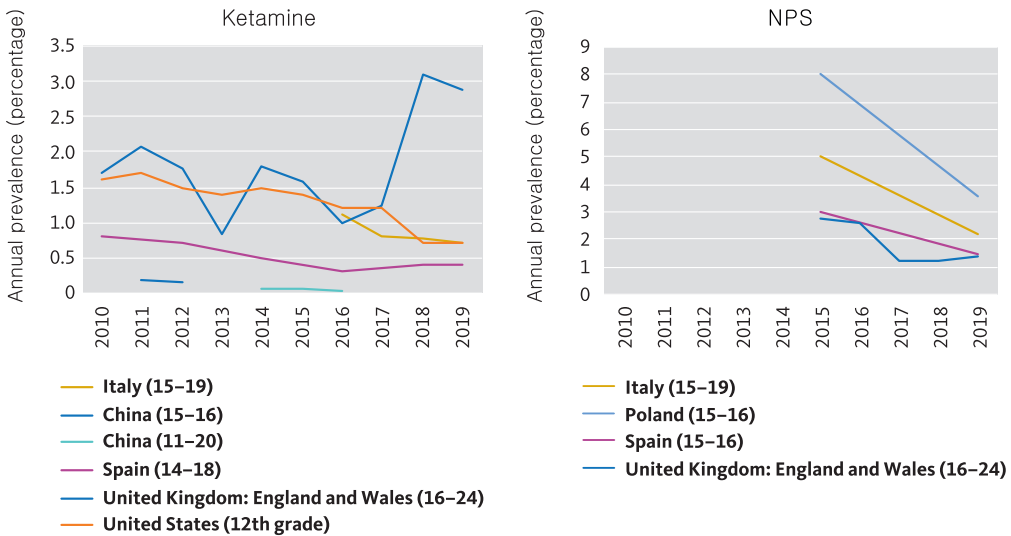
[그림 2-15] 청소년기 인구(2014~2019년) 및 성인 인구의 유형별 신종향정물질 보급률 (2013~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신중향정물질의 남용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난 10년간 잉글랜드, 웨일스에서 청소년기의 케타민 남용 문제를 제외하고는 고소득국가의 청소년기 신중향정물질 남용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

[그림 2-16] 국가별, 연령별 신중향정물질 남용 추세선(2010~2019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유럽에서 노숙자, 수감자 및 취약 계층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만연한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6개의 유럽 국가에서 위와 같은 자들이 합성 칸나비노이드를 매일 사용할 확률(17.9%)이 일반적인 밤 문화 환경에 있는 계층의 남용 확률(1.2%)에 비하여 매우 높음
- ▶ 헝가리에서 정기적인 신중향정물질 남용자, 주로 합성 칸나비노이드나 합성 캐치논을 정기적으로 남용하는 인구는 주로 시골 지역에 있다고 보고됨
- ▶ 신중향정물질 남용자 중 내면 항해사(psychonaut, 환각제 등을 사용하여 내면을 탐색하는 사람) 유형은 내면을 탐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신중향정물질을 실험·연구하기도 하며, 그로 인해 많은 신중향정물질 남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독성을 유발하는 다른 불순물도 함께 소비하기도 함

3 생산 현황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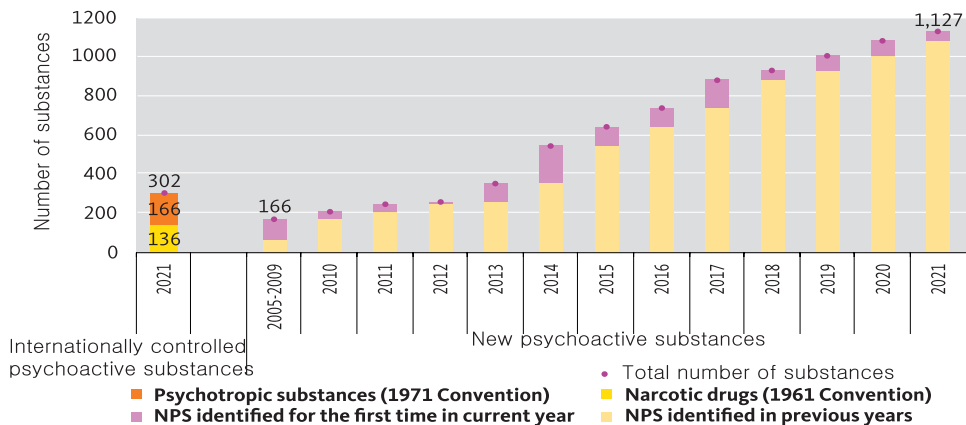
- ▶ 2016~2020년도 45개국에 걸쳐 약 16,000개의 암페타민류 각성제 생산과 관련된 공장들이 해체되었고, 이 중 94%가 메트암페타민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각각 메트암페타민 생산 공장(69%), 폐기물 처리장(19%), 화학물질 저장 창고(11%), 메트암페타민 포장 장소(1% 미만)로 구성됨
- ▶ 메트암페타민 생산은 대부분 북미, 주로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며, 멕시코에서 생산된 메트암페타민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소비됨, 그 중 일부는 해상을 통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수출되기도 함
- ▶ 주요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전구물, 전-전구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암페타민류 각성제 생산에 사용하였던 어떤 화학물질이 국제적인 통제 대상으로 지정 예정될 경우, 암페타민류 각성제 생산 화학자는 그 대체물질을 찾아 새롭게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은 일반적으로 최종 암페타민류 각성제만 아니라 전구물까지 같이 생산함
- ▶ 메트암페타민은 지역별로 다양한 전구물을 사용하여 생산되는데,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및 대부분의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에페드린(Ephedrin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을 주로 사용함
- ▶ 2020년도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그 전구물 적발량보다 더 많은데, 이는 범 집행이 주로 최종 생산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전구물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 2019~2020년도 전세계적으로 총 59개의 엑스터시 생산공장이 해체되었고, 엑스터시 생산공장은 2010~2015년 해마다 평균 41개, 2016~2020년 해마다 평균 58개가 해체되었음

- 실제로 대부분의 엑스터시 생산공장은 2016~2020년도 사이에 해체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전체 공장의 54%가 위 시기에 해체되었고, 오세아니아의 23%, 아시아의 13%가 각각 해체됨

나. 신종향정물질(NPS)

- 2009~2021년도까지 134개국에서 1,127개의 신종향정물질이 확인되어 UNODC에 보고되었고, 이는 2021년도까지 국제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향정신성 물질이 302개인 것과 대비하여 3배가 넘는 수치임
- 신종향정물질은 매우 짧은 기간에만 마약류 시장에 등장하였다가 곧장 사라지고 다른 신종향정물질로 대체되며, 실제로 2017~2020년간 총 193개의 신종향정물질이 마약류 시장에 등장하였으나 UNODC에 보고되지 않는 등 신종향정물질의 생산량, 거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2009~2018년도에 신종향정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현재 마약류 시장에서 확인되는 신종향정물질의 수는 약 550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즉 마약류 시장에서 확인되는 신종향정물질 중 절반가량은 기존에 확인된 것임
- 2020년도에 548개의 신종향정물질이 마약류 시장에서 확인되었는데, 이 중 77개가 처음 확인된 신종향정물질임, 2021년도에는 50개의 신종향정물질이 처음 보고됨

[그림 2-17] 국제적으로 통제된 마약류 수(2021년) 및 세계 신종향정물질 수(2005~2021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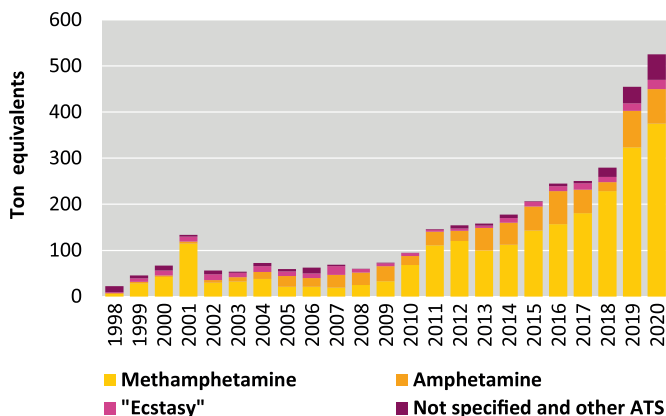
- 2016~2020년도 사이 확인된 신중항정물질은 대부분 흥분제(주로 캐치논)이며, 뒤를 이어 합성 칸나비노이드 수용체 작용제(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agonists), 환각제, 아편유사제(주로 펜타닐) 순으로 많음

4 밀매 현황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총 적발량은 약 525톤(전년 대비 15% 증가)으로 역대 최고치임, 그 중 메트암페타민이 약 375톤(전년 대비 16% 증가), 암페타민이 75톤(전년 대비 5% 감소), 엑스터시가 약 20톤(전년 대비 23% 증가), 기타 암페타민류 각성제가 55톤(전년 대비 53% 증가)임
- 메트암페타민은 2016~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 적발량 중 약 72%를 차지하고 있고,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 2010년 대비 5배가 넘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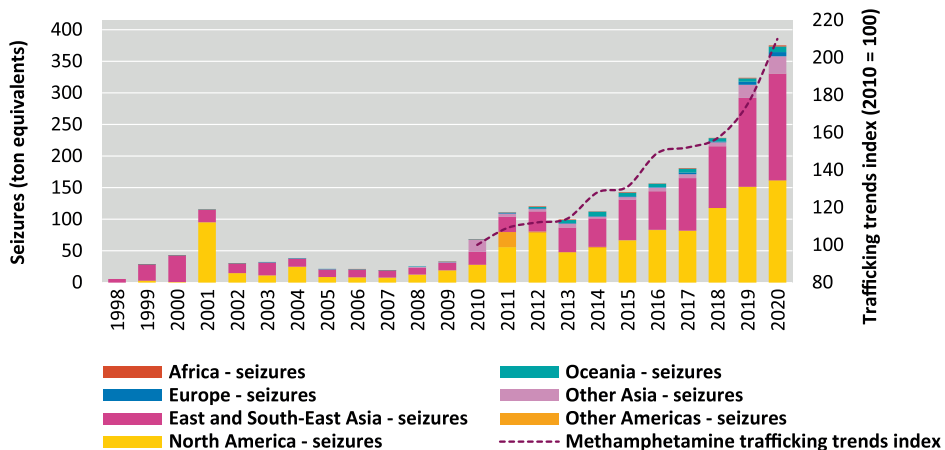
[그림 2-18]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 적발량(1998~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2016~2020년도까지 세계 암페타민류 각성제 적발량 중 암페타민은 17%를 차지하고 있고, 엑스터시는 4%를 차지함, 2010년 대비 2020년도 세계 암페타민 적발량은 4배, 세계 엑스터시 적발량은 3배 증가함
-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이 증가하였다고 UNODC에 보고하고 있는 국가는 2006~2010년도 총 84개국에서 2016~2020년도 117개국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메트암페타민 밀매가 지역적으로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함, 그에 비해 암페타민은 91개국에서 105개국으로, 엑스터시는 95개국에서 103개국으로 증가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 대비 증가폭이 비교적 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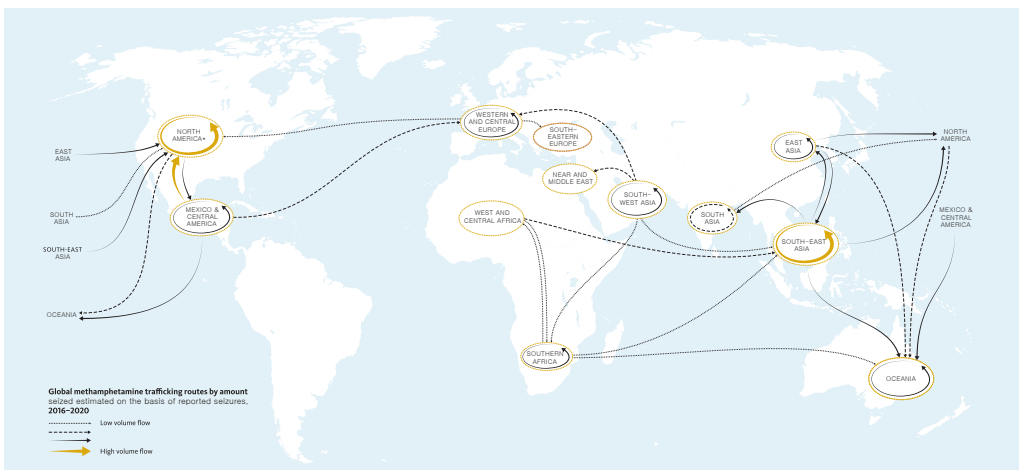
[그림 2-19] 대륙별 세계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및 메트암페타민 밀매 추세선(1998~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메트암페타민 밀매의 대부분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메트암페타민의 주요 출발국 또는 경유국인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내, 북미 내에서 활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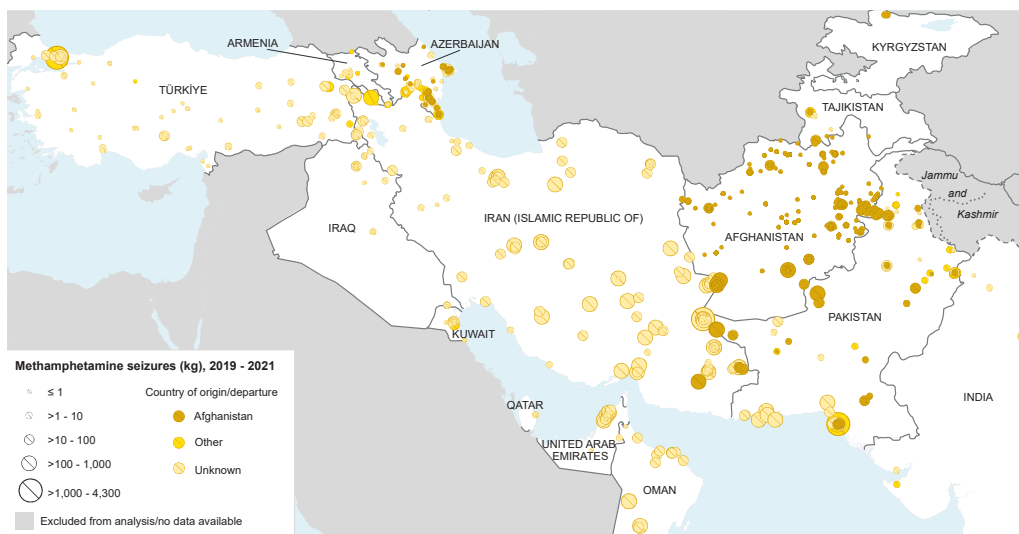
[그림 2-20] 메트암페타민 주요 밀매 경로(2016~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2019년도 이란 내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의 약 90%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020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적발한 메트암페타민 또한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출발국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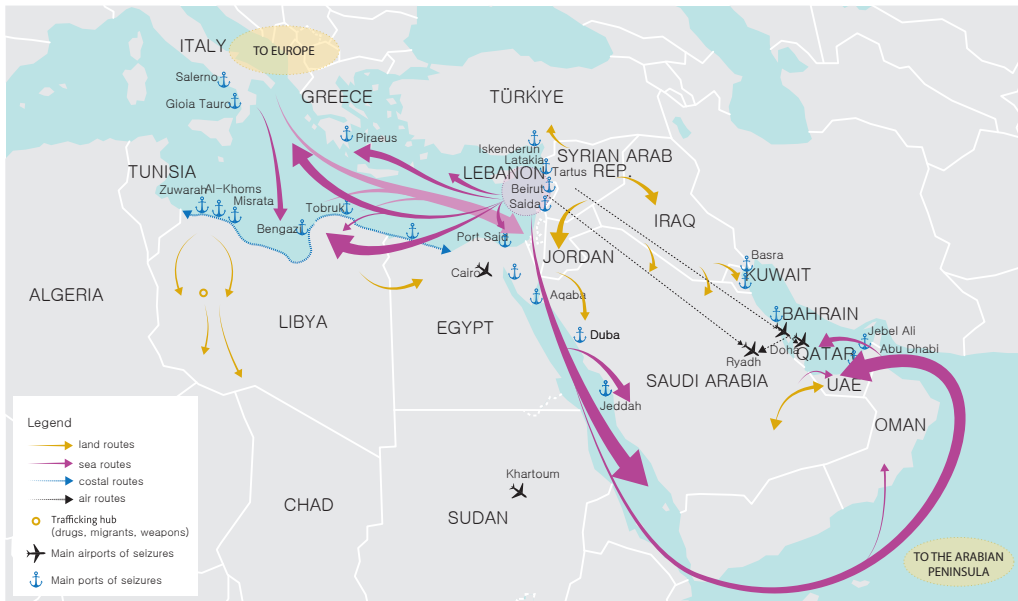
[그림 2-21] 근·중동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메트암페타민 적발량 분포도(2019. 1.~2021. 9.)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서아시아(The Near and Middle East) 및 북미 일부에서 알약 형태의 암페타민이 캡타곤(Captagon)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캡타곤은 주의결핍장애, 과잉 행동장애, 우울증 및 기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1960년대 합법적으로 생산되었다가, 그 부작용에 의해 1980년대 국제적으로 생산이 금지된 페네틸린(fenethylamine)을 함유하고 있음
- ▶ 최근 캡타곤에는 페네틸린을 함유하지 않고 암페타민을 카페인, 다른 불순물을 혼합하여 생산하며,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 ▶ 2020년 서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적발된 암페타민이 암페타민류 각성제 압수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위 두 곳에서 압수된 암페타민류 중 99%가 캡타곤임
- ▶ 특히 2020년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캡타곤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시리아, 레바논이 그 출발지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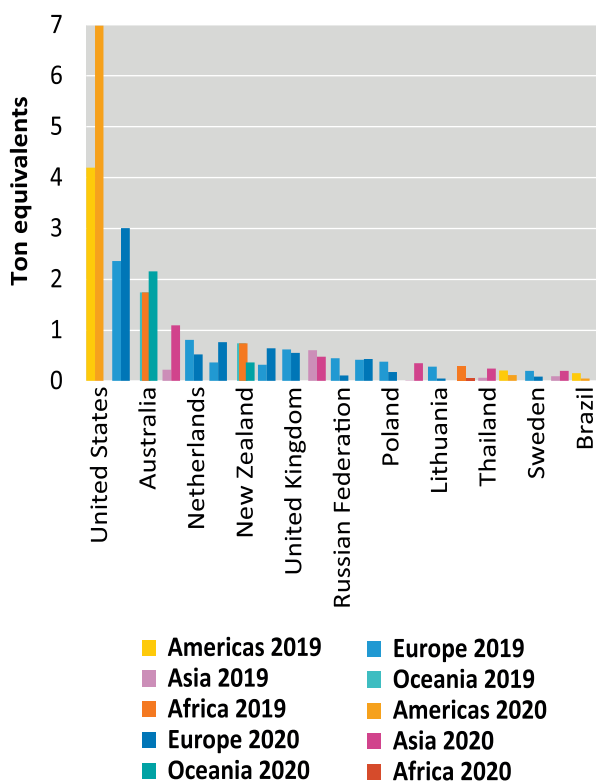
[그림 2-22] 중동, 북미의 캡타곤 주요 밀매 경로(2016~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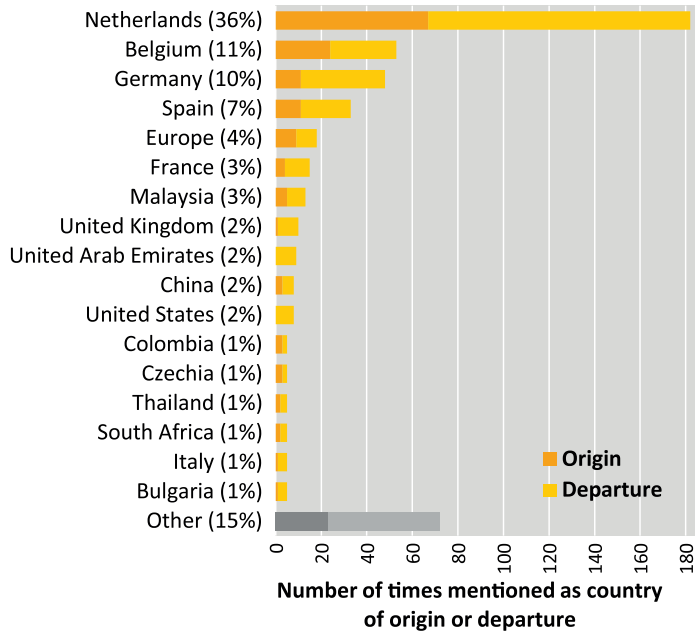
-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엑스터시의 수요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엑스터시 적발량은 증가하였는데, 서부·중부 유럽에서 적발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로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에서 적발량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임
- ▶ 2020년도 전반적인 엑스터시 적발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적발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국가(44개국)보다 적발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하는 국가(53개국)가 더 많음

[그림 2-23] 국가별 엑스터시 압수량(2019~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그림 2-24] 주요 국가별 엑스터시 기원국 및 발송국 언급 횟수(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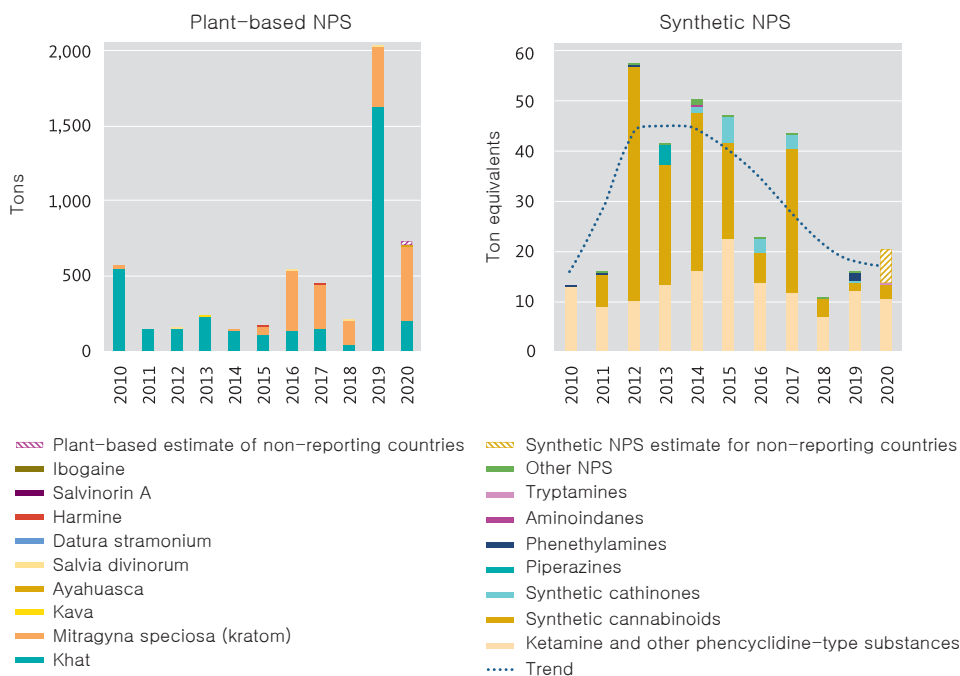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나. 신종향정물질(NPS)

- 2020년도 세계 식물 기반 신종향정물질의 적발량은 2019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Khat (주로 아라비아, 아프리카산 식물의 잎으로 마취 성분 함유)가 2016~2020년도 식물 기반 신종향정물질의 적발량의 55%를 차지함
- 세계 합성 신종향정물질 적발량은 2012년도에 최고치에 달한 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고, 그 중 2020년도 합성 칸나비노이드 적발량은 2012년도 대비 94%나 감소하였으며, 2020년도 합성 캐치논 적발량은 2015년 최고치 대비 98% 감소함
- 2016~2020년도 세계 합성 신종향정물질 적발량 중 케타민 및 펜시클리딘 유형 물질 (Phencyclidine-type substances)이 가장 큰 비율인 51%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합성 칸나비노이드 41%, 합성 캐치논 6%를 각각 차지함

[그림 2-25] 세계 식물 기반·합성 신종향정물질 적발량(2010~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2020년도 케타민은 대부분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에서 적발되고,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케타민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태국, 중국이 그 뒤를 따름
- 2020년도 합성 칸나비노이드는 터키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이집트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터키, 러시아가 그 뒤를 따르는 것과는 다소 대조적임
- Kratom(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열대나무로, 코카나무와 같이 알칼로이드 성분 함유)은 2020년도 식물 기반 신종향정물질 적발량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에서 주로 적발됨

4 대마⁸

1 세계 현황 개요

- ▶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
 - 2020년도 세계 대마 남용 인구는 약 2억 9백만 명으로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4%가 넘는 수치임
 -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 내 청소년 및 성인 초기(15~24세) 인구 중 대마 남용 인구는 19.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 대마 남용자 수는 증가하였고, 기존 정기적으로 대마를 남용한 자들의 남용 빈도 또한 증가하였음
- ▶ 대마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됨
 - 대마 재배량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세계적으로 대마 실내재배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대마 실외재배보다 더 많다고 보고됨
 - 2020년도 세계 대마초(Cannabis herb) 적발량은 약 4,707톤, 세계 대마수지(Cannabis resin) 적발량은 약 2,190톤으로 전년대비 모두 증가하였음
 - 2016~2020년도까지 세계 대마초 적발량의 절반 이상을 아메리카 대륙이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201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 세계적인 대마 합법화 추세
 - 국가별 대마 합법화의 범위와 처벌 수준도 제각기 달라 합법화에 따른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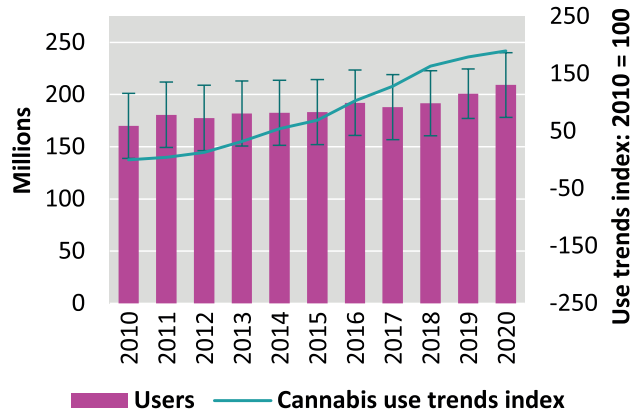
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미국 21개주(콜롬비아 특별구 2개 포함), 캐나다, 우루과이에서 비의료용 대마 생산·판매가 합법화되어 있음
- 네덜란드는 커피숍에서 개인 사용 목적의 대마 판매를 용인하는 정책이 있고, 몰타(유럽)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를 7g까지 소지할 수 있는 등의 법률이 있음

2 소비(남용) 현황

- ▶ 2020년도 세계 대마 남용 인구는 약 2억 9백만 명으로 2010년도 약 1억 7천만 명 대비 23% 증가하였으며, 이는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4%가 넘는 인구에 해당함
- ▶ 전 세계 청소년(15~16세) 중 5.8%가 지난 1년간 대마를 남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소년기의 약물 남용은 뇌 발달 저해, 우울장애 유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성인의 경우보다 위험성이 더욱 큼
- ▶ 2019년도 세계 대마 남용자의 2/3는 남자였으나, 그 비율은 국가나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의 대마 남용의 성별 차이는 좁혀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대마 보급률(annual prevalence) 기준 2003년도 남성 8.1%, 여성 4.4%에서, 2020년도 남성 13.3%, 여성 10.4%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감소함
- ▶ 특히, 코로나19 락다운 기간 동안 ‘정기적 대마 남용자(regular user)’는 그 사용 빈도가 2배 증가하였다고 보고되고, ‘비정기적 대마 남용자(occasional user)’는 남용 빈도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2-26] 세계 대마 남용 인구 및 대마 남용 추세(201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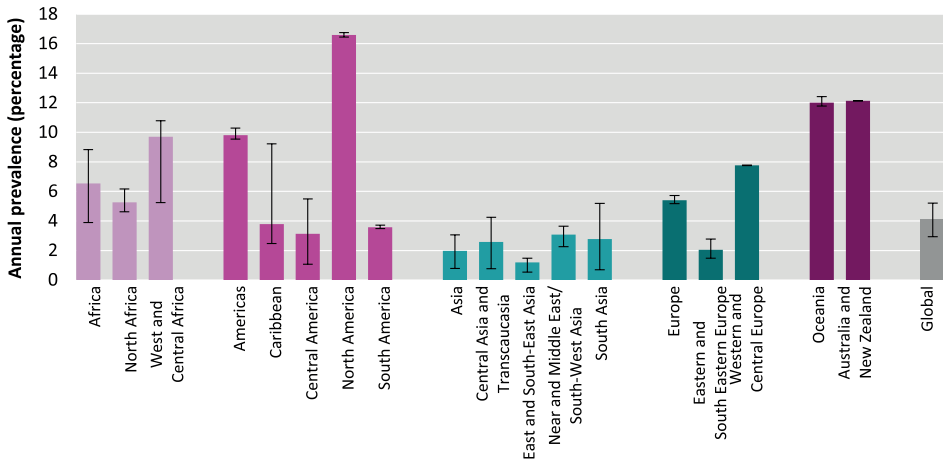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대마 보급률(the prevalence of cannabis use)은 2010년도 3.8%에서 2020년도 8%까지 증가하였고, 대마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천차만별이며, 북미, 호주, 뉴질랜드 및 서아프리카 순으로 높음
- 2020년도 유럽 내 약 2,900만 명이 지난 1년간 대마를 사용하였고, 최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자국내 대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특히 유럽연합 내 전체 청소년 및 성인 초기(15~24세) 인구 중 대마 남용 인구가 19.2%에 이를 정도로 심각함
- 유럽에서 대마 사용에 따른 약물치료 건수는 2010년도 성인인구 10만 명당 27명에서 2019년도 성인인구 10만 명당 35명 수준으로 증가함
- 브라질, 영국, 프랑스 등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례연구 결과, 마약류를 한 차례도 남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대마를 남용한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3배 더 높고, 매일 대마(THC 10% 이상 함유)를 남용하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앓을 확률이 4배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함

- ▶ 2020년도 아프리카 성인인구 중 6.5%가 대마를 남용하였고, 아프리카에서 약물 남용 장애로 치료를 받고있는 인구 중 55%(10만 명당 3명)가 서아프리카에 있음, 북아프리카에서 약물 남용 장애로 치료받는 인구 중 1/3은 대마 남용으로 인해 치료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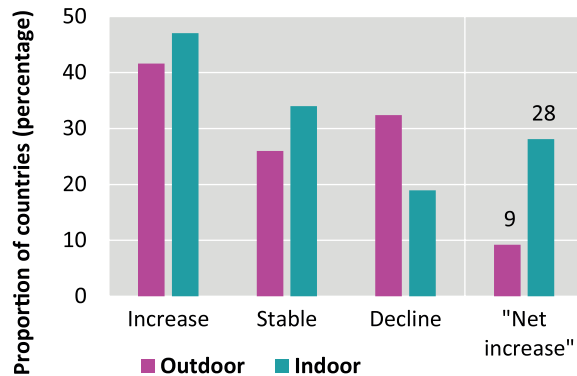
[그림 2-27] 대륙별, 하위 지역별 대마 보급률(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 대마는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2010~2020년도까지 최소 154개국, 최대 190개국에서 생산됨, 재배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 ▶ 2019~2020년도에 세계적으로 대마 실내재배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대마 실외재배보다 더 많다고 보고됨, 대마 실내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수는 2011~2015년도 48개국에서 2016~2020년도 66개국으로 증가함

[그림 2-28] 대마 실외재배 및 대마 실내재배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 비율(201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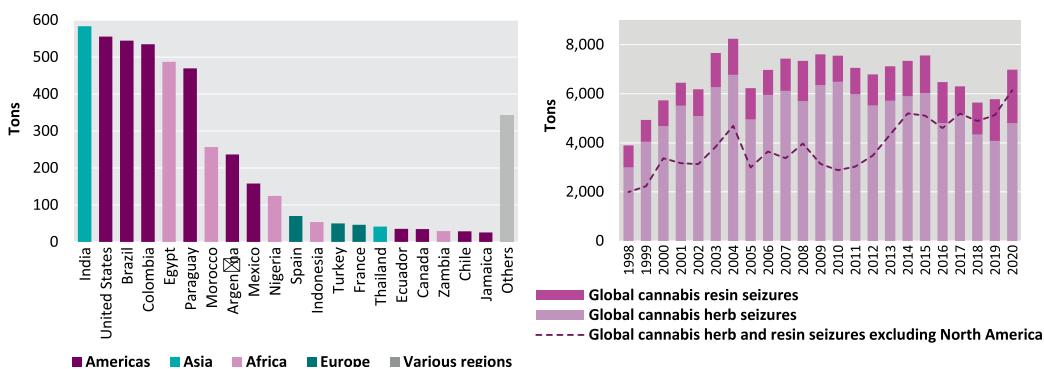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4

밀매 현황

- ▶ 2020년도 세계 대마초(Cannabis herb) 적발량은 약 4,707톤, 세계 대마수지(Cannabis resin) 적발량은 약 2,190톤으로, 2019년 대비 각각 15%, 29% 증가
- ▶ 북미 일부에서 비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한 2015~2019년도까지 대마초 적발량이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다시 대마초, 대마종자의 적발량이 증가하였음
- ▶ 2015~2019년도까지 대마초 적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대마 밀매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 2016~2020년도까지 아메리카 대륙은 세계 대마초 적발량의 58%를 차지하였으나, 그 비중은 2010년 84%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대마초 적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남용자 수는 2010년도 대비 2020년에 약 130% 증가함

[그림 2-29] 국가별 대마초 적발량(2020년) 및 세계 대마 적발량(199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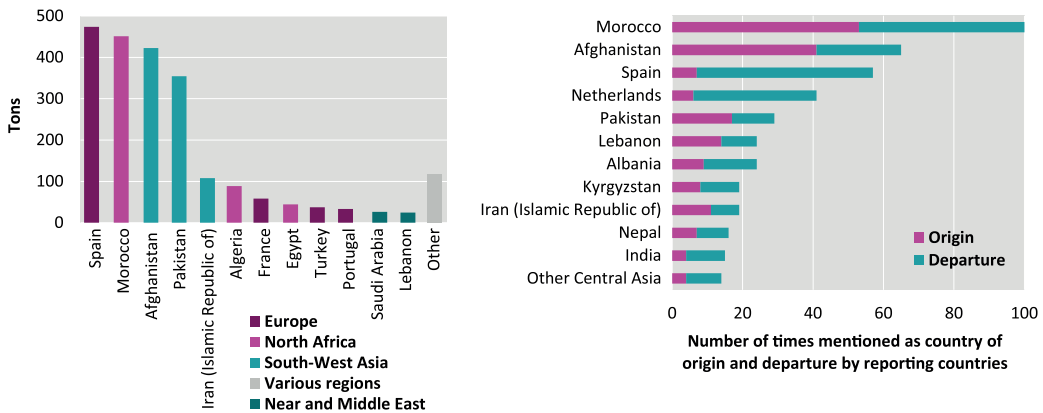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 대마수지 적발량은 2020년도 역대 최대이고, 대마수지 밀매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함, 2016~2020년도 대마수지 적발량의 39%는 동서아시아, 33%는 서부·중부유럽, 21%는 북아프리카에서 확인됨

▶ 특히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서아시아로 밀매되는 대마수지 적발량이 가장 많음. 스페인은 서부·중부 유럽으로 대마수지를 공급하는 주요 출입구이고, 모로코는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대마수지의 주요 공급 국가임

[그림 2-30] 국가별 대마수지 적발량(2020년) 및 국가별 대마수지 기원지, 출발지 언급수 (2016~2020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2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 ▶ 대마 합법화에 따른 개인, 사회, 국가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가별 대마 합법화의 범위와 처벌 수준도 달라 그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려움
- ▶ 특히 합법화된 비의료용 대마 남용에 따른 장애 및 그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 합법적으로 생산된 대마 제품의 안정성 문제, 조직화된 범죄단체의 대마 산업 개입, 음주운전 처벌과 같이 대마 남용 후 운전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되어야 함
- ▶ 2022년 1월 기준, 미국 21개주(컬럼비아 특별구 2개 포함), 캐나다 및 우루과이에서 비의료용 대마 생산·판매가 합법화되어 있고, 우루과이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된 소매 시장에서만 대마 생산·판매를 허가하지만, 미국 21개주와 캐나다는 이익 목적 산업에서도 자유롭게 대마 생산·판매가 허가되어 있음
- ▶ 네덜란드는 위 미국 21개주, 캐나다 및 우루과이와 같이 전면적인 대마합법화를 한 것이 아니기에 대마 소지, 판매, 생산은 불법이며, 1970년도부터 커피숍에서 개인 사용 목적의 대마 판매를 용인하고 있는데, 마약 관련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1월 오직 네덜란드 주민(시에 거주, 등록된 자)에 한해서만 커피숍에서 대마 구매가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음
- ▶ 몰타에서는 2021년 1월에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를 7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식물(Cannabis plants) 4개까지 재배가 가능하며, 건조된 대마 상품 50g까지 저장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킴
- ▶ 현재 64개국에서 제한적인 의료용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대한 법률이나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중 34개국에서만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의료용 대마초 모두에 대해 사용 허가하고 있음